



2015년 3월 FOMC 정례회의 주요 논의 내용

이아름 연구원

■ 미국 연준(Fed)은 2015년 3월 17~18일에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¹⁾에서 금리 인상까지 인내심을 갖는다(*be patient*)²⁾는 표현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곧 단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1월 27일 개최된 FOMC 정례회의 종료 후, 2015년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인내심'이라는 표현 유지 여부에 따라 첫 금리 인상 시점이 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³⁾

■ 과거 기준금리 인상 시기 사례와 유사하게 선제지침(*Forward Guidance*)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가 임박했음을 예상할 수 있음.⁴⁾

● 2004년 6월, 이전 FOMC 정례회의에서 인내심 문구를 삭제한 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적이 있음.

- 2004년 6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이전 FOMC 성명서에서 경제지표를 고려하여 통화정책 완화를 상당기간 유지하기로 하였다가⁵⁾ 통화정책 정상화까지 인내심을 갖는다고⁶⁾ 발표함.
- 그 후, 통화정책 완화는 신중하고 완만한 속도로 해제한다고 발표한⁷⁾ 다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

●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2004년과 유사한 통화정책의 선제지침이 전개되고 있음.

1) 연준은 매년 정기적으로 8회에 걸쳐 금리·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FOMC 회의를 개최함.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회의를 열기도 하는데, 2015년 FOMC 회의 일정은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임.

2) the Committee judges that it can be patient in beginning to normalize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3) 이아름(2015),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결정」, KIRI Weekly, 보험연구원.

4) 최호상(2015), 「3월 미국 FOMC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과 향후 전망」,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5)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된 FOMC 정례회의 성명서 주요 내용.

6) 2004년 1월과 3월에 개최된 FOMC 정례회의 성명서 주요 내용.

7) 2004년 5월에 개최된 FOMC 회의 정례성명서 주요 내용.

- 그러나 달러화 강세 영향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됨.
- 2015년 3월 FOMC 정례회의 참석자들(총 17명)은 2014년 12월 FOMC 정례회의보다 201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당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목표치도 소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축소됨.
 - 2014년 12월 전망에서는 201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0~1.6%로 전망하였지만 이번 수정된 경제전망에서는 0.6~0.8%로 상당폭 하향 조정함.
 - 또한 2015년 3월 연준은 2015년 실업률을 5.0~5.2%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2014년 12월 전망 5.2~5.3%보다 하향 조정됨.
 -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2015년 3월 전망에서 2.3~2.7%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2014년 12월(2.6~3.0%)보다 낮은 수준임.
 - 고용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 약화와 주택시장 부진으로 경기회복 속도는 2014년 12월 FOMC 정례회의와 달리 완만하다고 평가됨.
- 옐런(Yellen) 의장은 고용시장 개선과 더불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합리적 확신(Reasonably Confident)을 갖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함.
 - 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바탕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예상한 2015년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축소됨.
- 또한 17명의 FOMC 위원 중 기준금리 인상 적정시기에 대해 15명은 2015년으로 예상하였으며, 2015년 말 기준금리는 0.625%(중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기 인상 가능성을 낮춤.
 - 유가하락 및 달러화 강세 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압력 완화 등으로 향후 예상 기준금리 수준이 하향 조정됨.
 - 2015년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발표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도 말 예상 기준금리 수준(중간치)은 2014년 12월 전망에 비해 각각 50bp, 62.5bp, 50bp 하락함.
- 이번 FOMC 정례회의를 계기로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은 완화되었지만 추후 인상 가능성, 달러화 강세 등의 변동성이 존재함으로 향후 FOMC 정례회의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야 함.

(FRB, WSJ 등)